
 논문

마르그리트 뒤랑(Marguerite Durand, 1864-1936)의 페미니즘과 『라 프롱드』(La Fronde)*

신 행 선

- | | |
|---------------------------------|------------------------|
| I. 들어가기 | IV. ‘아름다운’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의 |
| II. 배우에서 저널리스트-페미니스트로 | 역설 |
| III. 일간지 『라 프롱드』(La Fronde)의 도전 | V. 나가기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마르그리트 뒤랑(Marguerite Durand, 1864-1936)의 페미니즘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뒤랑은 1897년에 『라 프롱드』(La Fronde)라는 일간지를 주관하여 발간했던 인물이다. 이 신문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기사 작성, 기획, 편집, 인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간지 신문이었다. 이는 여성들에게 시민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을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할 정도로 여성의 능력에 회의적이고 보수적이었던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 속에서 진지한 저널리스트로서 여성들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뒤랑은 또한 여성들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독특한 페미니스트였다. 여성의 외모를 통한 여성의 매력을 페미니즘의 소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뒤랑의 이와 같은 페미니스트 인식과 그녀의 생활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랑과 그녀의 일간지 『라 프롱드』(La Fronde)가 프랑스 페미니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004)

I. 들어가기

마르그리트 뒤랑(Marguerite Durand)은 프랑스 제3공화국 전반기에 활동했던 언론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일간지 『라 프롱드』(*La Fronde*)를 창간하여 발행했던 여성이다. 『라 프롱드』지 주간이기도 했던 뒤랑은 동료였던 엘렌 세(Hélène Séé)와 더불어 의회 기자석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¹⁾ 또한 뒤랑은 다른 동료와 더불어 드레퓌스(Dreyfus) 재판에 수십 차례 참석하였으며, 『라 프롱드』지는 드레퓌스 재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들에게 시민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 이래로 여성을 법적 미성년과 마찬가지로 간주할 정도로 여성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한정시키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보수적인 프랑스 사회 속에서, 그것도 남성들이 지배하던 저널리즘 세계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여성사, 특히 프랑스 여성 및 페미니즘 관련 연구자들에게 그녀의 이름은 또 다른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마르그리트 뒤랑 도서관(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은 여성사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를 갖춘 여성문제 특화 도서관 가운데 하나로서 프랑스 페미니즘 및 여성사 연구자들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²⁾

1) Marie-Rose de LaBriolle, "Une femme à l'avant-garde de son époque: Marguerite Durand(1864-1936)", *Diplomées*, 69(1969), p. 7.

2) 1930년대 초반, 거의 70을 바라보던 나이의 뒤랑은 19세기 내내 여성들의 권리 향상, 여성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던 페미니스트들이 점차 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어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고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또한 이것이 차후 세대를 위해서도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뒤랑은 여성들의 활동 및 그들의 투쟁과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것들까지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편지와 같은 개인적 자료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뒤랑이 프랑스 페미니스트 역사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당대 선구적인 여성들의 전형이었던 것은 아니다. 뒤랑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여성들 사이에 동화되어 전투적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직 배우였던 뒤랑은 저널리스트이자 페미니스트로 변신하면서 페미니즘과 사회운동 및 유명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활동 등에서 당대에 큰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는 페미니스트로서보다는 그녀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점에서 뒤랑은 그녀의 역할과 업적에서 볼 때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잊힌 인물이다.³⁾ 그 배경에는 뒤랑이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페미니스트의 상징이었던 ‘신여성’의 정체성을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장식적인 것으로 여기던 당시 프랑스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성’의 아이콘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독특한 페미니스트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랑의 『라 프롱드』⁴⁾지는 프랑스에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이라는 점 하나 만으로도 여성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프랑스와 영미권에서 뒤랑의 일생을 다룬 전기가 나와 있

그녀가 수집했던 많은 것들을 파리에 기증하였고, 그것이 현재 마르그리트 뒤랑 도서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곳에 소장된 것들은 뒤랑이 자기 자신은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 널리 알려진 페미니스트들의 사적인 기록 및 사진 자료, 연구서, 신문 등 17세기 이래로부터 뒤랑 당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및 주변 국가의 여성 및 페미니즘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었던 것들을 1931년에 파리 시에 기증했던 것인데, 그 이듬해인 1932년에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었다. 이후 파리 5구 부설 <마르그리트 뒤랑 도서관>으로 약 반 세기가량 페미니즘 연구에 큰 역할을 하며 소장 자료도 점차 더 늘어났고, 1989년에 파리 시장이 이 도서관을 파리 13구로 옮기면서 현재까지도 여성사 및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뒤랑은 1936년에 바로 자신의 이 도서관 안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확장을 위해 일했다. Cf. Yannick Ripa, *Femmes d'exception. Les raisons de l'oubli*(Paris: Le Cavalier Bleu, 2018), p. 12.

3)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Histoire d'une femme, mémoire des femmes*(Paris: Mairie de Paris - Agence Culturelle de Paris, 1992), p. 37; Yannick Ripa, *Ibid.*, p. 18.

고,⁴⁾ ‘여성성’과 페미니즘을 접합시킨 뒤랑의 독창성이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흥미로운 연구가 나와 있지만,⁵⁾ 국내에서는 그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성과 프랑스 페미니즘을 다룬 개설서나 일부 개설 번역서에서만 간략하게 다룰 뿐, 아직 뒤랑과 『라 프롱드』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나 논문이 나와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뒤랑이 『라 프롱드』지 발간을 통해 페미니스트 대열에 합류하며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뒤랑이 어떠한 배경에서 배우에서 저널리스트-페미니스트로 변신하게 되는지, 그리고 제작과정이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프랑스 최초의 일간지를 만든 그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라 프롱드』지 발간을 통해 언론인이자 페미니스트로 거듭난 뒤랑에게 이러한 도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이 프랑스 내 페미니스트 서클 및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배우에서 저널리스트-페미니스트로

뒤랑은 1864년에 파리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유복한 부르주아 가정이었던 외가 덕분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는 아직 쥘 페리(Jules Ferry)의 교육 개혁법 이전 시

4) Jean Rabault, *Marguerite Durand(1864-1936): “La Fronde” féministe ou “Le Temps” en jupons*(Paris: L’Harmattan, 1996); Sue Helder Goliber, “The Life and Times of Marguerite Durand: A Study in French Feminism”(Ph.D. diss., Kent State University, 1975); Elizabeth Coquart, *La Frondeuse. Marguerite Durand, patronne de presse et féministe*(Paris: Payot, 2010).

5) Mary Louise Roberts, *Disruptive Acts. The New Woman in Fin-de-Siècle Fr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기라서 여성을 위한 공교육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도 전통적인 부르주아 가정 여성들처럼 교육을 받았던 셈이다.

뒤랑의 어머니였던 안나-카롤린(Anna-Caroline)은 유명 여성들에 대한 인명사전 출판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고, 자신의 대를 이어 이름을 남기게 될 ‘아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남성 우월 사고를 비꼬는 글을 써서 가명으로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던 여성이다. 그녀의 인명사전 목록에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나 테르와뉴 드 메리쿠르(Théroigne de Méricourt)와 같이 성적 평등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투쟁했던 이들의 이름이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뒤랑의 어머니가 명확한 독트린을 가진 페미니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녀가 남성들이 주도하던 당시 사회에 대하여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는 있다.⁶⁾ 이점에서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을 보여주었던 뒤랑의 성향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기질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⁷⁾

당시 대부분의 부르주아 여성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예쁘게 꾸미고 앉아서 잘 차려 입은 신사들의 눈길을 받고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 꾸며진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흔했다. 뒤랑은 부르주아 가정 여성들의 전통적인 교육을 받긴 했지만, 여느 부르주아 가정의 젊은 여성들에게 흔히 펼쳐졌던 일반적인 미래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15세에 극예술 학교에 들어갔고, 17세의 나이에 코미디-프랑세즈의 배우라는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8년에 변호사이자 하원의원이었던 라게르(Georges Laguerre)와 결혼하기까지 파리에서 꽤 인기가 많은 성공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뒤랑의 남편이었던 라게르는 24세에 프랑스 최연소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인물이었다. 그는 코뮌나르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고, 광

6)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p. 13-14.

7)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5.

산 파업 노동자들 뿐 아니라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le)을 변호한 적도 있는 좌파 성향의 변호사였고,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가 만든 신문 『라 저스티스』(*La Justice*)지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열렬한 블랑제(Boulangier)주의자가 되었던 인물이다. 뒤랑은 결혼과 더불어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 라게르의 활동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정치와 저널리즘의 세계였다.⁸⁾ 부부가 함께 파리의 생토노레가(19, rue St.-Honoré)에 마련한 공간은 열렬한 블랑제주의 운동을 위한 정치 살롱 역할을 했다. 이 공간은 뒤랑이 유명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녀는 거기에서 “블랑제주의의 롤랑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⁹⁾ 그녀는 또한 라게르가 주도했던 블랑제주의 신문 『라 프레스』(*La Presse*)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덕분에 뒤랑은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이라는 첫 경험을 할 수 있었다.¹⁰⁾ 이는 이후 뒤랑의 페미니스트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었던 남편이 뒤랑을 정치와 저널리즘의 세계로 이끌기는

8)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p. 18-19, 23.

9) Marie-Rose De Labriolle, “Une femme à l’avant-garde de son époque”, p. 2;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6.

10) 뒤랑이 정치적 활동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던 남편 라게르를 대신해 『라 프레스』지 발행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성향의 저널리즘을 맛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뒤랑이 저널리즘에 대해 남긴 메모에 의하면, 그녀가 처음으로 기사를 써서 기고한 것은 그 이전이었다. 뒤랑이 코메디-프랑세즈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몰리에르(Molières)의 ‘상상병 환자(Malade imaginaire)’의 선상 공연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고, 코메디-프랑세즈의 고문서 기록 보관 담당자였던 몽발(Georges Monval)이 자신이 발행했던 『몰리에르 연구가』(*Le Moliériste*)라는 잡지에 그녀가 발견한 것에 대해 한 페이지 정도의 기사를 실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뒤랑은 그것이 그녀가 쓴 첫 기사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Marguerite Durand et Michèle C. Magnin, “Les Femmes dans le Journalisme (1930)”, *Manuscrits de Marguerite Durand*, Tome 3.4.

(<https://digital.sandiego.edu/durand-tome3/4>)

했지만, 뒤랑이 본격적으로 여성문제와 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라 프롱드』라는 신문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남편 라게르와 이혼하고 난 이후였다. 1891년 불랑제의 도주와 자살로 인하여 불랑제주의 열기가 식고 그 운동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에 뒤랑은 약 3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라게르와 이혼했다. 이혼이 합법화되었던 시기이긴 했지만, 당시 부르주아 가정의 도덕적 관념에서 ‘이혼’은 아직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유명 배우와 정치인의 이혼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더욱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혼 이후에도 우호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¹¹⁾ 이후 뒤랑은 『르 피가로』(*Le Figaro*)지 저널리스트로 일하였는데, 주말에 발행되는 특집호에서 ‘피가로 통신(*Le Courrier du Figaro*)’이라는 섹션을 담당하였다. 『르 피가로』지 편집장과는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와 재혼을 하지는 않았다. 뒤랑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싱글맘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피가로 통신’을 담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직 페미니즘 문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뒤랑이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하며 여성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계기는 그녀가 1896년 4월에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 페미니스트 대회에 참관하면서부터였다. 뒤랑은 『르 피가로』지 편집장의 요청으로 그 국제 페미니스트 대회에 리포터 자격으로 참관하였다. 본인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르 피가로』지에서 주말 특집호의 한 섹션을 담당하는 저널리스트로서 취재차 보내졌던 것이다. 『르 피가로』지 편집장의 의도는 그 페미니스트 대회를 조롱하는 기사를 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성에 의해 쓰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는데, 뒤랑 역시 큰 호기심을 가지고 기꺼이 그에 응하였다.¹²⁾ 하지만 이 국제 페미니스트 대회 참

11)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p. 22-23.

12) Au jour le jour: La “Fronde”, *Le Temps*, 7 Décembre 1897; Marguerite Durand,

관은 이후 뒤랑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뒤랑은 그 대회에 참석했던 페미니스트 인사들의 연설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르 피가로』지 편집장의 기대와 달리 뒤랑은 『르 피가로』지에 기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것, 여성들에게 ‘투쟁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에 대해 공평하지 못한 신문 보도들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페미니스트 대의명분을 위한 흥미로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¹³⁾ 『라 프롱드』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한 셈이었다. 이와 같이 뒤랑은 의도치 않게 극적으로 페미니스트 대열에 합류하며 “불량제주의의 뮤즈”에서 “저널리스트-페미니스트”로의 극적인 ‘개종’¹⁴⁾을 경험하게 되었다.

뒤랑은 『라 프롱드』지가 여성 저널리스트들을 양산하며 여성들이 사적인 세계에서 공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라 프롱드』지 본부가 여성들의 의견과 정보가 모이는 포럼이자 젠더 정체성을 위한 ‘놀이터’¹⁵⁾가 되기를 원했다. 불량제주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뒤랑은 이 일간지가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¹⁶⁾ 뿐만 아니라 그녀는 대중 일간지 『라 프롱드』가 기존의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페미니스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En cinq ans”, *La Fronde*, 15 décembre 1902.

13) Marguerite Durand et Michèle C. Magnin, “Les Femmes dans le journalisme” (1930).

14) Charles Sowerwine, *Les femmes et le socialisme*(Paris: 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1978), p. 76.

15) Mary Louise Roberts, *Disruptive Acts*, p. 105.

16) *Ibid.*, p. 71.

III. 일간지 『라 프롱드』(*La Fronde*)의 도전

1897년 12월 9일, 『라 프롱드』(*La Fronde*)라는 이름의 일간신문이 파리에서 발간되었다. 프랑스 제3공화국 전반기는 ‘신문의 황금시대’¹⁷⁾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간행되던 시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 프롱드』지의 창간은 그저 새로이 등장했던 다른 많은 신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¹⁸⁾ 하지만 이 신문은 저널리스트가 아직 하나의 독립된 전문적 직업군으로 채 완성이 되지도 않았던 19세기 말에 여성이 발행인이 되고, 취재와 기사 작성은 물론 기획과 편집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신문 발간의 전 과정이 오직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일간신문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¹⁹⁾ 야간에 경비를 서는 한 명의 남성 직원을 제외하면 활자 인쇄를 담당하던 식자공까지도 모두 다 여성이었으므로, 신문 발간의 전 과정이 100%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여성에 의한 여성 신문이었던 것이다.

17) Claude Bellanger et als. (éd.), *Histoire générale de la presse française*. De 1871 à 1940, t. 3(Paris: PUF, 1972), p. 22.

18) 1881년 7월 29일 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던 여러 제한들이 풀려서 일종의 출판 봄이 일어났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1871-1940년 사이 신문의 발전과 관련하여 명확한 숫자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제3공화국 시기에 신문이 놀랍게 발전했던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1870년 파리에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일간지는 약 33개, 1880년에 약 60개, 1910년에는 약 70개 정도에 이른다. *Ibid.*, pp. 137-138, 234.

19) 1871년에서 1914년 사이에 약 35개의 페미니스트 신문들이 창간되었지만, 대부분 월간이었고, 그 생명이 길지 못해서 오래 가지 않아 정간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베르틴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 1848-1914)가 1881년에 창간했던 페미니스트 신문 『여성시민』(*La Citoyenne*)도 주간지로 시작하였지만 1년 만에 월간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마저도 1891년에는 발행이 중지되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 합법적으로 신문(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1884년에 이르러서였다. Steven C. Hause, Anne R. Kenney, *Women's Suffrage and Social Politics in the French Third Republic*(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36; Yannick Ripa, *Les femmes, actrices de l'Histoire. France, 1789-1945*(Paris: A. Colin, 2004), pp. 81-82.

『라 프롱드』지 이전에 이미 다른 페미니스트 신문들이 존재했지만 이 신문이 발간될 것이라는 소식은 프랑스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회자되며 각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²⁰⁾ 그 가장 큰 이유는 신문 발행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서, 그것도 일간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여성들에 의해 신문이 발행된다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동시에 여성들이 어떻게 감히 신문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는 남성 저널리스트들의 불신, 혹은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조롱이 섞인 호기심도 있었다. 뒤랑과 그의 팀이 『라 프롱드』지 1호를 발간했을 때만 해도 신문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여성들 대부분에게는 배제된 활동이었다.²¹⁾ 여성을 온전한 한 개인으로 보지도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개인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심이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에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여성들에게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된 직업일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으로 저널리스트의 업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이전처럼 여성들이 단순히 신문에 글을 기고하던 것과 달리 리포터로서 취재를 위해 집을 떠나서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도록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²²⁾ 19세기 프랑스에서 미혼의 중산계급 여성이 홀로 집을 떠날 때는 원칙적으로 후원자가 동반되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었고, 심한 경우 매춘부로 오인 받을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리포터로 취재 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여성들이 집에서 머물며 예쁘게 보이고 미래의 남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인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20) Mary Louise Roberts, *Disruptive Acts*, p. 74.

21) Christian Delporte, *Les journalistes en France 1880-1950. Naissance et construction d'une profession*(Paris: Le Seuil, 1999), p. 93; Marc Martin, "Profession et idéologie: le journalisme français à la fin du XIX^{es}", *Recherches Contemporaines*, n° 1(1993), p. 124.

22)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87.

것이였다.²³⁾ 그 때문에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탄생하고, 오로지 여성들에 의해 새로운 신문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여성들이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치며 남성들과의 경쟁을 통해 법조계나 의학계에 진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반응을 자아냈다.²⁴⁾

『라 프롱드』지가 등장했을 때, 이 신문에 대한 반응은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관대함으로 위장된 당황스러움과 경계심, 의구심, 호기심 쪽이었다. 파리의 저널리스트들은 이 새로운 일간지의 탄생을 알리면서 어떻게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신문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지, 그 내용이 제대로 채워지기는 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듯 우회적인 표현으로 동정어린 기대감을 보여주었다.²⁵⁾ 혹은 ‘투석기’라는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동일한 이름을 표방하며 집단적 반항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²⁶⁾으로 인해 『라 프롱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일간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²⁷⁾ 한편, 뒤랑이 한때 저널리스트로 일했던 『르 피가로』지는 『라 프롱드』지가 기존의 편협한 페미니스트 신문들과 달리 ‘진지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참신한 신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23) *Ibid.*, p. 89.

24) Sandrine Lévêque, “Femmes, féministes et journalistes: les rédactrices de *la Fronde* à l'épreuve de la professionnalisation journalistique”, *Le Temps des médias*, n° 12(2009), p. 44.

25) Anne-Claude Ambroise-Rendu, “*La Fronde* accueillie par ses pairs et jugé par les siens”, *Le Temps des médias*, n° 12(2009/1), pp. 279-282.

26)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 일어났던 프랑스 왕국 대귀족들의 반란 사건이었던 ‘프롱드의 난’으로 1648-1653년까지 계속된 프랑스에서의 내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Mary Louise Roberts et Dominique Royce, “Copie Subversive: Le Journalisme Féministe En France à La Fin Du Siècle Dernier,”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6(1997), pp. 230-249; Maggie Allison, “Marguerite Durand and *La Fronde*: Voicing women of the Belle Epoque”, Diana Holmes and Carrie Tarr (ed.), *A ‘Belle Epoque’? Women in French Society and Culture 1890-1914* (New York, Oxford: Berghahn Books, 2007), p. 38. ‘프롱드 난’의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는 김웅중, 『서양사 개념어 사전』(살림, 2013), 362-364쪽.

27) Jules Charetie, “La Vie à Paris”, *Le Temps*, 9 décembre 1897; Emile Farguet, “Aux Frondeuses”, *Le Gaulois*, 8 décembre 1897.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²⁸⁾

이와 같은 동료 저널리스트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라 프롱드』지는 창간호에서 신문의 이름이 권력과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비판’을 한다는 또 다른 사전적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⁹⁾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신문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남성들과의 투쟁을 도모하도록 부추기거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월감을 증명하고자 풍자적이고 비방적인 글을 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라 프롱드』지의 창간 의도는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성을 영원한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구태의연한 민법전의 편견을 극복하여 여성들이 장애물 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들이 열등하게 취급받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었다.³⁰⁾

『라 프롱드』지를 만들면서 뒤랑이 가졌던 야망은 그녀의 신문이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 복지를 위해 투쟁하는 일간지가 되는 것이었다.³¹⁾ 또한 그녀와 동시대에 살던 남성들에게 보다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신여성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³²⁾ 그녀는 이 『라 프롱드』지 탄생이 기존의 여성 및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뒤랑은 우선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성들도 ‘진지한 저널리스트’로서 남성들이 만드는 신문과 동일한 유형의 신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뒤랑이 기획, 취재, 편집, 인쇄에 이르기까지 신문 발간의 전 과정을 100% 여성으로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만일 단 한 명의 남성이라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면 사실 여부와 상관

28) “A travers Paris”, *Le Figaro*, 9 décembre 1897.

29) Harlor, “Les journaux”, *La Fronde*, 9 décembre 1897.

30) *Ibid.*

31) Dossier: Notes concernant *La Fronde*, Bibliothèque de Marguerite Durand.

32)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70.

없이 신문이 실제로는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졌고, 겉으로만 여성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치부될 수 있었던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했던 것이다.³³⁾

한편 뒤랑은 신문 발간의 전 과정이 여성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신문임을 공언하며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성’ 신문이라고 내세우며 스스로 『라 프롱드』지를 ‘여성’ 신문으로만 한정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뒤랑의 『라 프롱드』지는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신문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었다.³⁴⁾ 뒤랑은 프랑스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의 이념적 지붕 아래에서 다 같이 결합하기를 원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성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 프롱드』지가 모든 프랑스 여성의 신문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³⁵⁾ 뒤랑은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 밍크(Paule Minck), 포농(Maria Pognon)과 같이 영향력 있는 특정 페미니스트의 조직을 대변하는 기관지와 같은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뚜렷이 나타내던 소설가 쥐프(Gyp)³⁶⁾이 『라 프롱드』지에 기고하는 것도 거부했음을 뚜렷하게 명시했다.³⁷⁾ 무엇보다도 그녀는 여성 독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신문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라 프롱드』지는 여성들의 노동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페미니스트 조직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내놓거나 그에 대해 논의하는 섹션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성 및 페미니스트 관

33) Marguerite Durand et Michèle Magnin C., “Les Femmes dans le Journalisme” (1930).

34)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57.

35)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76.

36) 에드워드 드뤼몽(Edouard Drumont)의 『라 리브르 파롤』(*La Libre Parole*)지에 종종 글을 실었던 뚜렷한 반유대주의 성향의 소설가로서 쥐프는 필명이다. 본명은 시빌 리케티 드 미라보(Sibylle Riquetti de Mirabeau)이다.

37) *Le Temp*, 7 Octobre 1897.

런 기사 이외에도 의회 활동, 대외정치 상황, 증권, 예술과 문학, 그리고 연재소설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다른 일간지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지면에 다 포함시키고 있었다.³⁸⁾ 특히 발간 초기에는 일간지로서의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밝히며 신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였던 드레퓀스 재판에 할애하였다. 그 결과 1900년 이전까지는 페미니즘 관련 기사가 『라 프롱드』지 전체 목록에서 3-8%만 차지할 정도로 ‘페미니스트 신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간지처럼 보이기도 했다.³⁹⁾

이와 같이 뒤랑이 자신의 신문을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신문과 구분시키려 했던 것은 『라 프롱드』지가 다른 신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그야말로 하나의 ‘계대로 된 신문’으로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⁴⁰⁾ 뒤랑은 자신의 신문이 직접적으로 여성과 이해관련이 있는 이슈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주제까지 모두 다 다루면서 뉴스를 제공하고 알리는 작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 적극적인 저널리스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⁴¹⁾ 그리하여 『라 프롱드』지는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신문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만 한 신문으로서 ‘다른 신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간지’일 필요가 있었다.⁴²⁾ 그것이 바로 뒤랑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38)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57.

39) Irène Jami, *La Fronde(1897-1903) et son rôle dans la défense des femmes salariées*(Mémoire de maîtrise, Université de Paris 1, 1981), pp. 109-111, 114.

40) Susan Cecile Cate, *The Role of La Fronde in the History of Women Journalists in France*,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1986), p. 35.

41) 뒤랑이 1935년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라 프롱드』지 창간 목적이다. 이 인터뷰는 원래 1936년 1월에 방송되기로 했으나 뒤랑이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난 1936년 5월에서야 방송되었다. Cf. Susan Cecile Cate, *The Role of La Fronde*, p. 81;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24.

42) Sandrine Lévêque, “Femmes, féministes et journalises”, p. 44.

실제로 신문이 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를 했던 남성 독자들과 남성 저널리스트들은 『라 프롱드』지가 뚜렷한 독트린이 없고, 고유한 특징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르 땅』(*Le Temps*)지는 『라 프롱드』지가 “어떤 날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다음 날에는 그러한 권리가 불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기사를 싣기도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신문이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투쟁을 위한 신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신문이 다른 신문들과 구분되는 특징이나 뚜렷한 성향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⁴³⁾고 평했다. 여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성들에 의한 신문을 만들었다면서 실제로는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 관련 기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라 프롱드』지가 “지나치게 남성적 스타일”로 쓰였으며, 남성 저널리스트들과 그 저널리즘을 단순하게 모방한 신문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신문이기는커녕 남성들에게 너무 복종이 되어 있어서 남성들의 태도와 성향을 빌려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것”⁴⁴⁾이 입증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라 프롱드』지는 “치마 입은 『르 땅』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⁴⁵⁾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여진 데에는 『라 프롱드』지의 정체성이 모호하며, 남성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문을 모방했다고 비판하려는 경멸적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뒤랑은 오히려 이 별명을 비판이 아닌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였다.⁴⁶⁾ 당대 최고의 신문 가운데 하나였던 『르 땅』지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라 프롱드』지가 여성만의

43) “Ce que pensent les hommes”, *Le Temps*, 25 décembre 1897.

44) Maurice Le Blond, “Etudes sur la presse”, *Revue naturiste*(avril, 1900), Mary Louise Roberts et Dominique Royce, “Copie Subversive: Le Journalisme Féministe En France à La Fin Du Siècle Dernier”, p. 232에서 재인용.

45) Marguerite Durand, “En cinq ans”.

46) Marguerite Durand et Michèle C. Magnin, “Les Femmes dans le Journalisme”; Marguerite Durand, “En cinq ans”.

힘으로 만들어진 신문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문 창간 5주년을 기념하면서 뒤랑은 『라 프롱드』지가 “논의거리를 제시하는 제대로 된 신문이었고, 다른 신문들과 다를 바 없다. […] 처음에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툼과 질투로 인해 서로 핏대를 세우고, 머리카락을 잡고 싸울 것이라 여겼지만 […]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편집장이다 손톱도, 머리카락도 온전한 채 조화롭게 잘 유지되고 있다. […] 우리는 살아남았고, […] 그 승리는 페미니즘의 승리이며, […] 『라 프롱드』지는 단순한 신문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⁴⁷⁾ 더욱이 『르 땅』지도 “만일 우리가 [이 신문이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다면, 또한 우리가 기고문 서명자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이 길고 꼼꼼하게 쓰인 기사들이 매우 정보력이 있고, 교육적이며, 유용하기까지 해서 학자들이나 혹은 교수들이 쓴 것이라고 믿게 했을 것”이라고 평했다.⁴⁸⁾ 이는 결국 뒤랑이 의도했던 것처럼 『라 프롱드』지를 만드는 데 참여한 여성들의 능력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간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호에 실린 글을 보면 『라 프롱드』지 1호는 20만 부가 팔렸다.⁴⁹⁾ 하지만 당시 비슷한 다른 신문들의 실제 판매 부수와 비교해 보거나⁵⁰⁾ 『라 프롱드』지 측에서 창간호였음을 감

47) Marguerite Durand, “En cinq ans”.

48) “Ce que pensent les hommes”, *Le Temps*, 25 décembre 1897.

49) Supplément du dimanche de *La Fronde* du 1^{er} janvier 1899. Cf.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Annexes 3.

50) 예컨대 1910년 11월 발행 부수 기준으로 만들어진 파리 일간지 목록을 보면, 독자층이 가장 많았던 주요 일간지들 가운데 『르 프티 파리앵』(*Le Petit parisien*)이 매일 1,400,000부, 『르 주르날』(*Le Journal*)지가 810,000부, 『르 마탱』(*Le Matin*)지가 670,000부를 발간하긴 했지만, 『르 피가로』지가 37,000부, 『르 골로와』(*Le Gaulois*)지가 30,000부, 『르 땅』(*Le Temps*)지가 36,000부, 『르 리브르 파롤』(*Le Libre parole*)지가 47,000부 발행되었다. Claude Bellanger et als, *Histoire générale de la presse française*, p. 296.

안하여 학생조합이나 의회 등에 무료로 배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판매 부수는 과장되었을 공산이 크다.⁵¹⁾ 창간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라 프롱드』지는 약 49,000부를 발행하는 데 그쳤고, 1899년 12월에는 약 14,600부로 발행 부수가 더 감소하였으며, 팔리지 않은 신문이 재고의 3분의 2에 이르렀다. 재정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고, 편집자들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더라도 연체된 후에 간신히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뒤랑과 편집진간에 일시적으로 불화가 일어나기까지 했다.⁵²⁾ 정기구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광고를 하며 독자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⁵³⁾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⁵⁴⁾ 1902년경에는 겨우 2,250 부만 발행되었다.⁵⁵⁾ 결국 뒤랑은 “1903년 9월 1일자 신문이 이제 일간지 『라 프롱드』로서는 마지막 호가 될 것”⁵⁶⁾임을 알렸다. 당시 뒤랑은 『라 프롱드』지가 처음 간행될 때 의도했던 바가 이루어지고, 페미니즘 이슈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반드시 일간지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⁵⁷⁾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후부터는 『라 프롱드』지가 월간으로만 발행될 것”임이 공시되었고, 1903년 10월부

51)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79.

52) *Ibid.*

53) 예를 들면, 유명 사진작가 스튜디오 사진 촬영권, 스파 12회 이용권, 네일-페디큐어샵 12회 이용권, 유명 헤어 살롱 12회 이용권과 정기 구독자 카드 소지자들의 경우 신문사에서 주소를 제공하는 의사, 산파, 치과의 진료도 가능한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저녁 만찬 모임 무료 초대권, 재봉틀 할인 판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Cf. *La Fronde*, 18 décembre 1899.

54) 신문 가판대에서는 『라 프롱드』지가 다른 페미니스트 신문들과 같이 분류되어 가판대에 전시되지 못했고,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 신문을 비치하는 것을 거부했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들에게는 1년에 3번 정기 구독을 묶어서 하면 한 번은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학교 행정 당국의 방해로 여교사들을 독자로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Cf. Susan Cecile Cate, *The Role of La Fronde*, p. 76;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79.

55) Irène Jami, *La Fronde(1897-1903) et son rôle*, p. 45.

56) Marguerite Durand, “Ver l’avenir”, *La Fronde*, 1^{er} septembre 1903.

57) *Ibid.*

터 1905년 3월까지의 『락시옹』(*L'Action*)지의 부록 월간지로 명맥이 유지되다가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1906년부터는 더 이상 간행되지 못했다.⁵⁸⁾

약 6년 간 지속되었던 『라 프롱드』지의 도전은 결국 끝을 맺었다. 하지만 뒤랑의 노력으로 증권거래소, 의회, 법원과 같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배제되었던 공적 부분에 여성들이 저널리스트로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컨대 이제 여성들을 의회에서 보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1902년에 제네바의 한 저널리스트가 프랑스에 대해 쓴 보도 기사를 보면, “의회 안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금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 알아봤더니 그녀가 바로 『라 프롱드』지 편집자 뒤랑이었다. 이전에는 의회 내 기자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라 프롱드』지가 도래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의회에서 여성들을 여러 명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해 우리는 불평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⁵⁹⁾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이제 공적 세계에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곳에 여성들이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더불어 여성들의 능력으로는 남성들과 동일한 일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대의 인습적 사고에 도전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뒤랑의 『라 프롱드』지는 매우 유의미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58) 이후 1914년에 세 번 발행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뒤랑이 자신의 친분관계들을 이용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며 1927년 7월부터 9월까지 일간지 『라 프롱드』로 간행되었고, 192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간행되었으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59) Dossier: Coupures de presse concernant *La Fronde*(1902),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IV. ‘아름다운’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의 역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페미니즘의 흐름을 먼저 주도했던 것은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은 부르주아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당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조직 지도자들이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들 고용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이 적었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나 노동자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개혁적 성향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 뒤랑 역시 부르주아 출신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여성 노동이나 고용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라 프롱드』지 발간 이전에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노동계급 여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⁶⁰⁾ 하지만 뒤랑은 페미니즘의 대중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1892년에 여성들의 야간 노동이 금지된 탓에 『라 프롱드』지의 식자공 여성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신문 발행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야간에 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문 접는 일을 하는 여성들은 새벽 2-3시까지 끔찍한 노동 조건에서도 일하는 것이 허락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뒤랑은 1892년 법이 ‘약한 성(sex)인 여성’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직업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성 노동 통제 원칙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⁶¹⁾ 『라 프롱드』지 식자공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1892년 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뒤랑은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 했다. 그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을 요구했고, 여성과 남성의 능력 차이를 내세워 성적으로 차별하

60) Charles Sowerwine, “Le Groupe féministe socialiste 1899-1902”, *Le Mouvement social*, n° 90(Jan.-Mars. 1975), p. 89.

61)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p. 95-96.

는 것, 그로 인해 남녀의 불평등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하여 뒤랑은 『라 프롱드』지 식자공 여성들의 일을 강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남성 식자공들과 동일한 임금을 제시했다.⁶²⁾ 나아가서 그녀는 여성이 스스로 일하여 얻은 임금에 대한 자율권 및 여성노동을 규제하는 노동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⁶³⁾ 1899년에 『라 프롱드』지 여성 식자공들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여성 식자공 노조(Syndicat des femmes typographes)는 야간 노동 금지 조치와 여성 식자공의 노조 가입에 반대하는 출판노조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du Livre)의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뒤랑의 재정적, 정신적 지지를 받아서 탄생했다.⁶⁴⁾ 뒤랑은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여성 노조들의 수호자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⁶⁵⁾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라 프롱드』지 발간이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07년 3월에 뒤랑은 여성 노동사무소(Office du Travail féminin) 설립을 위한 대회를 자신의 사비를 들여 개최하기도 했다. 그 대회에서 뒤랑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 개입하도록 독려했으며, 남녀 노동자의 동등한 임금, 여성 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기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임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

62) 『라 프롱드』지 창간과 관련하여 일간지 『르 땅』과의 인터뷰에서 뒤랑이 밝힌 답변에 따르면, 여성 식자공들이 원래 5프랑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남성 식자공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8프랑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Le Temps*, 7 Décembre 1897. 이는 상당히 높은 임금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1년에서 1893년 사이에 세느(Seine)도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3프랑 정도였고, 남성 노동자들은 약 6프랑 15상팀이었다. Charles Sowerwine, “Le Groupe féministe socialiste”, p. 89.

63) Eliane Gubin, Catherine Jacques, Florence Rochefort, Brigitte Studer, Françoise Thébaud, Michelle Zancarini-Fournel (sous la direction de), *Le Siècle des féminismes* (Paris: Les Editions de l'Atelier/Editions Ouvrières, 2004), p. 92.

64) “Nouveau Syndicat”, *La Fronde*, 16 mars 1899.

65) Marie-Hélène Zylberberg-Hocquard, *Féminisme et Syndicalisme en France*(Paris: Editions Anthropos, 1978), p. 219.

리, 출산 여성에 대한 휴가, 수유에 부적합한 직업에서 여성 노동의 금지 등을 역설했다.⁶⁶⁾ 뒤랑은 이 대회를 통해서 그녀 자신을 여성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연결 고리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⁶⁷⁾ 반면에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은 기관지 『인민의 소리』(*La Voix du peuple*)를 통해 뒤랑을 경계해야 할 인물로 간주했다.⁶⁸⁾ 하지만 뒤랑은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비비아니(René Viviani)와의 친분 등으로 연결된 인맥을 통해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의 논리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어 의회를 설득시켰고, 결국 1908년부터 여성 노동사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⁶⁹⁾

하지만 뒤랑이 계급투쟁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문 한 장의 가격이 하루치 빵 값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독자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웠다.⁷⁰⁾ 뒤랑은 『라 프롱드』지 창간을 통해 페미니즘이 노동운동에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얻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를 기대했고, 여성 노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지만, 뒤랑이 기대하는 노조는 전적으로 동업조합의 성격을 띤

66)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p. 24-25.

67) *Ibid.*, p. 25.

68) *Ibid.* 1901년 낭시(Nancy)의 한 인쇄소 파업 시, 해당 인쇄소 고용주가 여성 식자공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여성 식자공 노조 대표와 뒤랑은 활판 인쇄 산업에 여성들이 정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여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성 식자공들을 파견하여 파업 중인 남성 식자공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적이 있다. 이에 노동총연맹과 출판노조연맹은 여성 식자공 노조를 ‘파업 파괴자’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했던 적이 있는데, 이후부터 여성 식자공 노조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뒤랑은 경계 대상이었다. 이 파업에 관해서는 François Chaignaud, *L’Affaire Berger-Levrault: le féminisme à l’épreuve (1897-1905)*(Rennes: PUR, 2009) 참조.

69) 여성 노동사무소를 위한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1907년 7월 13일 통과된 법안 덕분에 앞으로는 기혼여성이 자신의 임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p. 24-25;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65; Jean Rabaut, *Marguerite Durand (1864-1936)*, p. 97.

70) Annie Dizier-Metz, *Ibid.*, p. 21.

노조였다.⁷¹⁾ 1900년 9월에 열린 ‘여성 대회(Congrès international de la condition et des droits des femmes)’⁷²⁾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노동계급 대표들이 제기한 여성노동 문제에 대해 답하려고 노력했고, 뒤랑은 이 대회를 주관했다. 하지만 뒤랑은 “35년 이상 일한 여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전직 노동자출신 부바르(Stéphanie Bouvard)의 제안에 반대했다.⁷³⁾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와 활력을 높이 사긴 하면서도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을 이끄는 것은 결국 부르주아 여성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⁷⁴⁾ 결국 뒤랑은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⁷⁵⁾ 뿐만 아니라 뒤랑의 지나치게 화려하고 엘레강스한 외모와 생활방식은 노동자들을 위한 그녀의 대의명분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다.⁷⁶⁾

뒤랑의 페미니즘의 가장 독특하고 역설적인 점은 바로 그녀가 외모를 통한 여성의 매력과 여성성의 특별함을 페미니스트 소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뒤랑은 여성이 진정으로 남성과 동등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진정한 여성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며, 여성 자신들의 매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⁷⁷⁾ 그리하여 뒤랑은 『라 프롱드』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단정한 용모와 태도를 갖추고 전통적인 이상적

71) Charles Sowerwine, “Le Groupe féministe socialiste”, pp. 97-98.

72) 뒤랑과 『라 프롱드』지가 이 대회 개최를 위해 큰 역할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여성대회였으며, 파리 시의회로부터 5,000프랑의 지원금도 받았다. 뒤랑이 대회 의장이었고, 비비아니(René Viviani)가 부의장이었다.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19.

73) Charles Sowerwine, “Le Groupe féministe socialiste”, p. 98.

74) Charles Sowerwine, *Les femmes et le socialisme*, p. 76.

75) *Ibid.*, pp. 83-84.

76) Michèle C. Magnin, “Marguerite Durand: un remarquable parcours insolite et didactique”, *The French Review*, Vol. 88, No. 1(october 2014), p. 143.

77) Mary Louis Roberts, “Acting Up. The Feminist Theatrics of Marguerite Durand”, Jo Burr Margardant (ed.), *The New Biography. Performing Femininity in Nineteenth-Century Franc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172.

여성성을 지닌 모습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여성다움을 깎아 내리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놀랍고 새로운 관점의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⁷⁸⁾ 이는 또한 페미니스트란 곧 여성성을 포기한 여성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통념을 뒤집는 것이었다.⁷⁹⁾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던 뒤랑은 매혹적인 여성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페미니스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뒤랑의 독특한 페미니즘 인식과 여성성 및 여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태도 때문에 뒤랑은 잘난 체 하고 자아도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했다.⁸⁰⁾ 오클레르는 뒤랑을 ‘외모에 신경 쓰는 가식적이고 허세 가득한 여성(cocotte)’ 취급을 한 적이 있고, 마들렌 펠티에(Madeleine Pelletier)는 『라 프롱드』지에 투고할 기사를 써서 찾아 갔다가 기사 내용 보다는 펠티에 자신의 여성스럽지 못한 외모와 외양 때문에 환대받지 못했던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다.⁸¹⁾ 하지만 뒤랑의 이러한 독특한 페미니즘이 다양한 성향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그녀의 신문으로 끌어들이며 기고하게 하거나, 오클레르, 펠티에와 함께 참정권 운동과 같은 페미니스트 투쟁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⁸²⁾ 오히려 뒤랑은

78)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244.

79) Susan Cecile Cate, *The Role of La Fronde*, p. 64; Mary Louis Roberts, *Ibid.*, p. 61.

80) Mary Louis Roberts, p. 64.

81) Mary Louise Roberts, “Acting Up”, p. 187. 펠티에는 남성 복장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하며, 여성성을 내세우는 것은 여성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반(反)여성성을 강조했던 페미니스트였다. 이 점에서 뒤랑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페미니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펠티에에 대해서는 신행선, 「여성이기를 거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마들렌 펠티에(Madeleine Pelletier, 1874-1939)」, 『코기토』 61(2007.2) 참조.

82) 사실 뒤랑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페미니스트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정작 페미니스트들의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 참정권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클레르와 같은 적극적 참정권론자의 글을 『라 프롱드』지에 실게 하긴 했지만, 뒤랑 자신은 1900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그 성공의 많은 부분을 나의 금발머리에 빚지고 있다”⁸³⁾는 표현으로 답했다.

뒤랑의 고백에 따르면, 『라 프롱드』지가 일간지로서의 도전을 멈추게 된 데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가 부족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⁸⁴⁾ 페미니스트들이 『라 프롱드』지를 잘 읽지도 않았고, 추천하지도 않았으며, 구매하거나 구독하려고도 하지 않아서 정기 구독자 수가 항상 부족했고, 결국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신문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⁸⁵⁾ 이는 『라 프롱드』지가 당시 페미니스트 선전을 위한 중요한 포럼 역할을 했던 것은 맞지만, 뒤랑의 독특한 페미니즘 인식이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어 뒤랑이 동료들 사이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⁸⁶⁾ 사실 뒤랑의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미모와 여성성이 드러나는 것을 대놓고 선호

년 경 당시의 여성들이 아직 참정권을 조절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드레퓀스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가 프랑스 여성들에게 ‘위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한 몫을 했다. Marguerite Durand et Michèle C. Magnin, “Féminisme-La Politique des femmes” (1900), *Manuscrits de Marguerite Durand, Tome 1.6.* (<https://digital.sandiego.edu/durand-tome1/6>).

뒤랑이 여성 참정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입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은 1910년에 이르러서였다. 뒤랑은 1910년 4월 총선 당시 파리에서 각 구별로 여성 입후보자를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데 동참했다.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었다. 파리에서는 뒤랑을 포함하여 오를레르, 펠티에, 코프만(Caroline Kauffmann) 등 4명이 캠페인을 벌였다. 뒤랑 자신은 파리 9구에서 입후보했는데, 펠티에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Steven C. Hause, Anne R. Kenney, *Women's Suffrage*, p. 36; Maggie Allison, “Marguerite Durand and La Fronde”, p. 43;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p. 27-28; Françoise Soldani, *La Voix des femmes. Olympe de Gouges, Hubertine Auclert, Marguerite Durand, Madeleine Pelletier*(Paris: Editions Le bateau ivre, 2016), pp. 78-79; Elizabeth Coquart, *La Frondeuse. Marguerite Durand*, p. 226.

83) Marguerite Durand, “Confession”, *La Fronde*, 1^{er} octobre 1903.

84)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20.

85) Marguerite Durand, “Confession”.

86)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 50.

하던 뒤랑의 성향을 싫어하였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그녀가 너무 사교계에 치중한다거나 화려하고 부르주아적인 생활방식을 즐긴다고 비판했고,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며 남성들과 스캔들을 뿌리고 다닌다고 비난하기도 했다.⁸⁷⁾ 또한 페미니즘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전형화 해서 다른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⁸⁸⁾

전직 배우였던 뒤랑의 뛰어난 미모는 그녀가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평생 동안의 투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⁸⁹⁾ 당대의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그녀를 구분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뒤랑은 ‘추함’보다는 엘레강스함과 아름다움이 남성들로 하여금 페미니즘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⁹⁰⁾ 이와 같은 생각은 현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큰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성이 객관성을 가진 한 개인이기 이전에 시선을 받고 욕망을 유도하도록 미학적 판단을 하게 하는 ‘신체’를 가진 존재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을 뒤랑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¹⁾

여성의 힘만으로 새로운 일간지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회자하던 끝에 막상 1897년에 실제로 신문이 발간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실 『라 프롱드』지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신문 발행을 주관했던 뒤랑 개인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금발에다 예쁘고 매혹적인 외모를

87) 뒤랑은 카이오(Joseph Caillaux), 비비아니와 같은 유력 정치인들과도 연인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녀가 베를린을 여러 번 방문했고, 그때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그녀를 동반하고 연극 관람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 황제와도 은밀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오클레르는 뒤랑의 ‘연인 부대(regiment of lovers)’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했다. Steven C. Hause, Anne R. Kenney, *Women's Suffrage*, p. 36.

88)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21; Mary Louis Roberts, “Acting Up”, pp. 171-172.

89) Sandrine Lévesque, “Femmes, féministes et journalistes”, p. 50.

90) Michèle C. Magnin, “Marguerite Durand: un remarquable parcours insolite”, p. 143.

91) *Ibid.*

가진’ 뒤랑의 외적인 모습에 더 초점을 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⁹²⁾ 뒤랑에 따르면, 페미니스트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엘레강스함을 추구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적’이라고 남성들이 피상적으로 주장하며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페미니스트에게는 일종의 의무와 다름없는 추가 ‘작업[일]’이었다.⁹³⁾

19세기 프랑스에서 여배우는 매력적인 유혹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상화되기도 했지만, 매춘부로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상실하지만, 반면에 가부장적인 가정생활 구조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뒤랑은 젊은 시절에 이미 여성이 한편으로는 쾌락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강해질 수도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⁹⁴⁾ 그리하여 뒤랑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매력을 이용해 존중과 관심을 받도록 전통적인 여성의 이상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추하고 도발적이기만 하다고 간주하며 비판하던 당시 프랑스 사회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대중적 이미지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V. 나가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거의 대부분의 뛰어난 여성 작가들, 여성 전문직업인들, 정치, 사회적 활동에 뛰어든 여성들이 이 일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만큼 『라 프롱드』지는 당시 여성들에게 중요한 지면 가운데 하나였다. 『라 프롱드』지 이

92) Mary Louis Roberts, “Acting Up”, pp. 173-174.

93) Marguerite Durand, “Confession”; Louise Debor, “Féminisme en dentelles”, *La Fronde*, 19 juillet 1899.

94) Mary Louis Roberts, *Disruptive Acts*, pp. 56-58.

전에도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신문이나 잡지들이 소규모의 페미니스트 그룹과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었지만, 『라 프롱드』지는 대형 일간지 형태였을 뿐 아니라, 발행 부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라 프롱드』지 이후에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더 이상 가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신문에 글을 기고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저널리즘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⁹⁵⁾ 여성들이 특정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어려웠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여성들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후 여성 저널리스트들은 남성 저널리스트 동료들 옆에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이동을 뒤따르고 관찰하며 취재할 수도 있게 되었다.⁹⁶⁾

뒤랑의 『라 프롱드』지 창간은 새로운 여성 저널리스트들을 양산해 내고 여성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자 의견 교환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생조르쥬 가(rue Saint-Georges)에 있는 신문사 건물 안에는 여성들의 신체에 가장 걸맞은 운동이라며 뒤랑이 추천하던 펜싱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서실과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종종 컨퍼런스나 리셉션이 열리기도 했다.⁹⁷⁾ 『라 프롱드』지는 남녀동등 임금, 여성 노조, 여성 참정권과 같이 여성들의 운명 개선을 위한 대의명분을 지지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로지 여성문제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창간 당시 프랑스 사회의 여론을 들쭉이게 했던 드레퓀스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정의 구현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점에서 『라 프롱드』지는 단순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범주를 뛰어 넘는 신문이었다.

뒤랑은 그녀와 동시대에 살던 남성들에게 보다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신여성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벨 에포크 시대의 안티

95) Cf. Marguerite Durand, "En cinq ans".

96) Marie-Rose de LaBrionne, "Une femme à l'avant-garde de son époque", p. 7.

97)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20.

페미니스트들의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그녀의 여정을 이해하고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신여성이 도래하는 것을 아직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페미니즘을 진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⁹⁸⁾ 하지만 뒤랑이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용했던 것은 뒤랑을 동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소외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뒤랑의 『라 프롱드』지가 페미니즘의 성공을 가져오는 기반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독특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던 것이다.

뒤랑이 『라 프롱드』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끌어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화려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뒤랑의 매우 친밀한 친구들조차도 그녀의 신문사 뒤에서 누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뒤랑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정적 기록과 사적인 서류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부의 근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고,⁹⁹⁾ 단지 미루어 추측하고 상상하는 의견들이 있을 뿐이다.¹⁰⁰⁾ 하지만 뒤랑의 『라 프롱드』지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든 독자의 입장에서든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인식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점에서 뒤랑이 프랑스 페미니즘 역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98) Michèle C. Magnin, "Marguerite Durand", p. 143.

99) 뒤랑의 공식적인 수입원은 뒤랑이 직접 관여해서 만들었던 '아니에르 동물묘지(Cimetière Zoologique d'Asnières)'였으며, 1901년에 문을 열었다. 뒤랑은 자신의 재정문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비판하던 이들을 향해 "내 보석상자 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하나씩 모아왔던 22개의 완벽한 진주 컬렉션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진주들은 매우 희귀한 목걸이를 만들 요량으로 모아 두었던 것이었다. 그 진주가 『라 프롱드』지를 발간하게 했던 자본으로 이용되었다"고 답했다. Marguerite Durand, "En cinq ans".

100) 1987년에 뒤랑의 며느리(Mme Marcelle Périer)가 뒤랑 도서관에 기증한 뒤랑의 개인 어젠다를 통해서 1903년부터 뒤랑이 로칠드 형제(Alphonse Rothschild와 Gustave Rothschild)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Annie Dizier-Metz,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p. 22.

무엇보다도 『라 프롱드』지는 6년 동안만 유지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신문 제작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여성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던 것을 잠재웠으며, 취재 활동을 통해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공적 영역 및 제도권 안으로 여성들이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여성들에게 배제되었던 직업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뒤랑의 도전은 성공한 셈이며, 그녀의 신문은 20세기 전환기 프랑스 여성과 페미니스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투고일자: 2019. 7. 16, 심사일자: 2019. 7. 21, 게재확정일자: 2019. 7. 24>

▶ 주제어 : 프랑스(France),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스트(Feminist), 여성(Women), 마르그리트 뒤랑(Marguerite Durand), 『라 프롱드』(La Fronde)

참고문헌

1. 1차 문헌

Le Figaro; La Fronde; Le Gaulois; Le Temps

Dossier: Coupures de presse concernant *La Fronde* de 1897-1907,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Dossier: Notes concernant *La Fronde*,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Durand, Marguerite et Magnin, Michèle C., “Féminisme-La Politique des femmes” (1900), Manuscrit de Marguerite Durand, Tome 1.6.

(<https://digital.sandiego.edu/durand-tome1/6>)

_____, “Les Femmes dans le Journalisme”(1930), Manuscrit de Marguerite Durand, Tome 3.4.(<https://digital.sandiego.edu/durand-tome3/4>)

2. 연구문헌

김용중, 『서양사 개념어 사전』(살림, 2013).

신행선, 「여성이기를 거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마들렌 펠티에(Madeleine Pelletier, 1874-1939)」, 『코기토』 61(2007.2).

Allison, Maggie, “Marguerite Durand and *La Fronde*: Voicing women of the Belle Epoque”, Diana Holmes, Carrie Tarr (ed.), *A ‘Belle Epoque’? Women in French Society and Culture, 1890-1914*(New York, Oxford: Berghahn Books, 2007).

Ambroise-Rendu, Anne-Claude, “La Fronde accueillie par ses pairs et jugé par les siens”, *Le Temps des médias*, n° 12(2009/1).

Bard, Christine, *Les Femme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au 20e siècle*(Paris: A. Colin, 2001).

Bellanger, Claude et als. (éd.), *L'Histoire générale de la presse française. De 1871 à 1940*, t. 3(Paris: PUF, 1972).

Cate, Susan Cecile, *The Role of La Fronde in the History of Women Journalists in France*,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1986).

Chaignaud, François, *L’Affaire Berger-Levrault: le féminisme à l’épreuve(1897-1905)*(Rennes: PUR, 2009).

Coquart, Elizabeth, *La Frondeuse, Marguerite Durand, patronne de Presse et*

féministe(Paris: Payot, 2010).

- De Labriolle, Marie-Rose, “Une Femme à l’avant-garde de son époque: Marguerite Durand(1864-1936)”, *Diplômées*, 69(1969).
- Delporte, Christine, *Les journalistes en France 1880-1950. Naissance et construction d’une profession*(Paris: Le Seuil, 1999).
- Dizier-Metz, Annie, *La Bibliothèque Marguerite Durand, Histoire d’une femme, mémoire des femmes*(Paris: Mairie de Paris-Agence Culturelle de Paris, 1992).
- Goliber, Sue Helder, *The Life and Times of Marguerite Durand: A Study in French Feminism*(Ph.D. diss., Kent State University, 1975).
- Gubin, Eliane, Catherine Jacques, Florence Rochefort, Brigitte Studer, Françoise Thébaud, Michelle Zancarini-Fournel (sous la direction de), *Le Siècle des féminismes*(Paris: Les Editions de l’Atelier/Editions Ouvrières, 2004).
- Hause, Steven C., Kenney, Anne R., *Women’s Suffrage and Social Politics in the French Third Republic*(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Jami, Irène, *La Fronde(1897-1903) et son rôle dans la défense des femmes salariées* (Mémoire de maîtrise, Université de Paris I, 1981).
- Klejman, Laurence, Rochefort, Florence, *L’Egalité en marche: Le Féminisme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Paris: 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1989).
- Lévêque, Sandrine, “Femmes, féministes et journalistes: les rédactrices de la *Fronde* à l’épreuve de la professionnalisation journalistique”, *Le Temps des média*, n° 12(2009).
- Magnin, Michèle C., “Marguerite Durand: un remarquable parcours insolite et didactique”, *The French Review*, Vol. 88(2014).
- Margadant, Jo Burr (ed.), *The New Biography. Performing Femininity in Nineteenth-Century France*(Studies on the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Martin, Marc, “Profession et idéologie: le journalisme français à la fin du XIX^e”, *Recherches Contemporaines*, n° 1(1993).
- Rabaut, Jean, *Féministes à la Belle Epoque*(Paris: Editions France-Empire, 1985).
- _____, *Marguerite Durand (1864-1936): “La Fronde” féministe, ou “Le Temps” en jupons*(Paris: L’Harmattan, 2000).
- Ripa, Yannick, *Femmes d’exception. Les raisons de l’oubli*(Paris: Le Cavalier

- Bleu, 2018).
- _____, *Les femmes, actrices de l'Histoire. France, 1789-1945*(Paris: A. Colin, 2004).
- Roberts, Mary Louise, *Disruptive acts: the new woman in fin-de-siècle Fra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Roberts, Mary Louise et Royce, Dominique, “Copie Subversive: Le Journalisme Féministe En France à La Fin Du Siècle Dernier”,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6(1997).
- Soldani, Françoise, *La Voix des femmes: Olympe de Gouges, Hubertine Auclert, Marguerite Durand, Madeleine Pelletier - La citoyenneté politique des femmes en France, textes fondateurs*(Paris: Le Bateau Ivre, 2016).
- Sowerwine, Charles, “Le Groupe féministe socialiste, 1899-1902”, *Le Mouvement social*, n° 90(Jan.-Mars. 1975).
- _____, *Les Femmes et le socialisme*(Paris: 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 des Sciences Politique, 1978).
- Zylberberg-Hocquard, Marie-Hélène, *Féminisme et syndicalisme en France* (Paris: Editions Anthropos, 1978).

〈Résumé〉

Le féminisme de Marguerite Durand(1864-1936) et *La Fronde*

Haeng-Seon SHIN

Le but de cette étude est de discuter d'une féministe française, Marguerite Durand. Elle a été directrice du quotidien *La Fronde*, qu'elle a animé et publié à Paris en 1897. C'était le premier quotidien dont la publication était entièrement assurée par les femmes. Les Françaises n'avaient pas encore de droits de citoyenneté, elles étaient considérées comme des mineures à la fin du XIX^e siècle en France. En outre, la société française de l'époque était très conservatrice et sceptique quant aux capacités des femmes. Dans ce contexte, il était important de montrer les capacités des femmes en tant que journalistes sérieuses. Elle a également estimé qu'il était important que les femmes conservent leur beauté et leur féminité. Elle pensait que la beauté des femmes, sous forme de séduction, pourrait être utilisée comme un outil politique pour la cause du féminisme. Certaines personnes critiquent cette perception et son mode de vie. Cependant, il est indéniable que Durand et son journal, *La Fronde*, ont joué un rôle majeur dans l'histoire du féminisme français.

〈Abstract〉

The feminism of Marguerite Durand(1864-1936) and *La Fronde*

Haeng-Seon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French feminist Marguerite Durand. She was a director of the daily *La Fronde*, which she hosted and published in Paris in 1897. It was the first daily newspaper whose publication was entirely handled by women, from planning and writing to producing. French women didn't have citizenship rights yet, being considered minors in late nineteenth-century France. In addition, French society at the time was very conservative and skeptical of female ability. In that context, it was significant to show the capability of women as serious journalists. She also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women to maintain beauty and femininity. She believed that women's beauty, in the form of seduction, could be used as political tools for the cause of feminism. Some people criticize this perception and her lifestyle.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Durand and her journal, *La Fronde*, played a major role in the history of French feminism.